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 운 희(가톨릭대 박사과정)

문 혁 준(가톨릭대 부교수)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 8개 학급과 민간 어린이집 4개 학급의 만5세 유아 3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Fantuzzo와 동료들(1998)이 수정·보완한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국내에 적용한 최혜영·신혜영(2008)의 교사용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를 사용하였다. 리더십을 검사하기 위해 이재호·최인수(2008)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리더십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정란·양옥승(2003)의 부모용 유아기 자기조절 검사도구를 교사용 평정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평가척도(이학선, 2007)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래 놀이행동의 각 하위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 첫째,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사교적이고 주도성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유아일수록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상호작용은 리더십 및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영역과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남아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점검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덜 민감하고 사교적이지 못한 유아가 놀이단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래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유아를 파악하여 또래와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행동의 모델링을 제시하고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중일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아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주도적이고 덜 민감한 유아일수록 놀이방해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중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일반화되고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가족 간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